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49호 [루게 제24662호] 주제 103(2014)년 9월 6일 (토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새 세계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가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제 103(2014)년 8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 《새 세계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가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정중히 전달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37돐을 맞으며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가 열리게 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나는 우리 혁명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전국교육일군대회가 열리게 된것과 관련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교육사업은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민대개의 애국사업입니다. 후대들을 어떻게 교육코양하는가에 따라 나라의 국력과 혁명의 지도가 좌우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독창적인 사회주의 교육사상리론을 내놓으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어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적이며 인민적인 사회주의교육의 본모습을 마련해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평년의 교육중시사상과 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우리 혁명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으시어 최첨단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조국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이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었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이 세상을 놀래우는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강력한 핵억제력을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빛나게 건설되고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탁월한 교육중시사상과 그 실현을 위한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과학문화의 사회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지식경제화발전이 인제들에 의하여 나라의 국력과 경제문화의 발전이 좌우되는 인재중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문명국의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나가자면 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선군조선의 기둥강, 재능있는 인재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지금 시대와 혁명의 절박한 요구에 비해 배 나라의 교육사업은 웅대한 수준에서 진행되지 못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교육사업이 과학적인 전략에 따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지 못하고 교육체제와 교육관리, 교육내용과 방법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없으며 교육사업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조건들이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못하며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교육사업은 우리 혁명의 대를 이어주며 나라의 발전을 떠맡아주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다른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며 아무리 어려워도 후대교육사업은 한시도 중단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것이 우리 당의 교육중시사상이고 정책이라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교육사업의 주인인 교육부족 일군들과 교원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교육을 훌륭히 교육사업발전을 위하여 주인답게 애쓰지 않고 투신하지 않는 일군들과 교육자들을 그릇된 관직과 일본새로 하여 엄중한 후과가 빚어지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교육중시사상과 령도업적을 충직하게 받들고 주체혁명의 만년도대를 공고히 하며 부강조국건설에서 비약을 이룩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육혁명을 일으킬것을 결심하였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시었다.

《새 세계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투쟁구호입니다.

새 세계 교육혁명의 목표는 우리의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강성국가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우리 나라를 21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으로 되게 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풍부한 지식과 높은 창조적능력, 고상한 도덕품성과 건장한 체력을 가진 다방면교육을 발전된 인재들로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민들이 누구나 다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고 평생동안 배울수 있는 훌륭한 교육체제와 환경을 마련하여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새 세계 교육혁명행에서 기본고리는 중등일반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것입니다. 뿌리가 든든하여 충실한 열매가 달리는것처럼 중등일반교육을 강화하여야 대학들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지식수준을 높일수 있습니다.

새 세계 교육혁명의 원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방침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구현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교육사상리론은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와 원칙, 교육내용과 방법을 뚜렷이 밝혀주는 교육대강이요 오늘도 매일도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사회주의교육건설의 지도적지침입니다.

교육부문에서는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교육사상과 방침을 현실에 맞게 철저히 구현해나가며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와 원칙에서 탈선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철저히 당의 유일적령도 밑에 조직진행해나가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교육중시사상과 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합니다.

교육사업을 우리 식으로 혁신하고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내다보는 주체적인 립장과 안목에서 사회주의교육의 본래를 확고히 고수하면서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와 좋은 경험들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받아들이고 우리 식으로 발전시켜 교육에서도 당당히 세계를 앞서나가야 합니다.

모든 일군들은 새 세계 교육혁명을 일으키려는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치나섬으로써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일대 전환을 가져와야 하겠습니까.

새 세계 교육혁명수행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시대가 요구하는 새형의 인재들을 원만히 키워낼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완비하고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하는것입니다.

교육체제를 완비하는것은 새 세계 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한 기틀을 바로세우는 사업이며 이것은 교육혁명수행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전반적무교육기간을 한해 더 늘이고 교종들을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새 세계 교육혁명의 첫 포성을 울렸습니다. 교육부문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당의 의도에 맞게 원만히 실시되어 온을 낼수 있도록 중등일반교육체제를 더욱 개선완성하여야 합니다.

중등일반교육의 교종들과 교육과정은 우리의 실정과 세계적발전추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고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경제지리적특성과 학생들의 개성에 따르는 교육을 여러가지 형태로 실속있게 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등일반교육에서 수제교육에 힘을 넣으면서도 일반교육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방향에서 교육체제를 보강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기간에 모든 학생들이 강성국가건설에 앞지로 이바지할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체득하도록 하고 기술전문인공부를 계속할수 있는 기초를 튼튼히 다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고등교육체제를 세계적추세에 맞으면서도 강성국가건설에 요구되는 인재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낼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합니다. 지금 고등교육체제가 지난 세기 공업경제시대의 대학, 전문학교교육체제의 틀에 머물러있었으나 새 시대, 지식경제시대를 떠메고나갈 인재들을 키워내는 데서 제한성을 가지고있습니다. 새 세계 강성국가건설의 여러 분야에서 요구되는 유능한 학술형인재들과 실천형인재들을 많이 키울수 있게 고등교육체제를 개선하고 완비하여야 합니다.

모든 대학들에서 자기가 키워야 할 인재의 유형과 양성목표를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정하고 그에 맞게 학제와 학부, 학과와 강좌들을 정리하며 현대 학과를 비롯하여 필요한 학과들을 새로 내출것은 내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학들에서 첨단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낼수 있도록 편수고등교육체제를 더욱 발전시키며 박사원이 없는 대학들에서는 앞으로 지도력량이 준비되는데 따라 박사원을 내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 제도를 내오는 문제도 연구해보아야 합니다.

대학들을 종합대학화하고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지난해에 평양건축종합대학을 돌아보면서 이 대학을 건축부문의 학술중심, 정보중심, 자료보사중심, 원격교육중심으로 꾸리고 나라의 건축교육을 건축종합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헌신에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종합대학들을 내오고 그 기능을 강화하여 해당 부문과 지역에 필요한 인재들을 질적으로 키워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접적 전문학교들을 대학들로 통합할것을 통합학교 직업기술대학으로 전환할것은 전환시켜 고등교육의 전반적수준을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요대학들을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이나 근로 밀착된 지식경제시대의 일류기술대학으로 발전시키고 그 대학들을 본보기로 하여 모든 대학들을 추켜세워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 세워진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제는 자랑할만 한 우월한 교육체제이지만 그 교육수준이 높지 못합니다.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들의 규모를 늘이고 교육수준을 높여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을 실현하는데서 한몫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중요대학들에 원격교육체제를 세우고 교육수준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의 졸업생들도 실력을 따라 주간대학졸업생과 같이 인정하고 배치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정규화된 직업기술교육체제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지금 실천형기술인재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있지만 아직 그에 맞게 직업기술교육체제가 바로서있지 못합니다. 직업기술대학들이 현실에서

철저히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실천형기술인재들을 양성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기능공학교육을 정비보강하여 기능이 높은 인재들을 키워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관리는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원만히 실현하며 교육기관들과 지방의 자립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대와 현실이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도록 하는 것으로 되여야 합니다.

교육체제가 개선되는데 맞게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들의 책임과 권한을 바로 정하며 교육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교육행정지도체계와 기구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도, 시, 군정권기관에서 해당 지역의 대학과 각종 학교들에 대한 교육행정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며 학교가 학생들을 교육코양하는 직접적담당자로서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학생관리, 교원관리를 비롯한 교육관리사업을 시대적추세에 맞게 개선강화하여야 합니다. 일정한 연구와 시험단계를 거쳐 학업제에 의한 교수관리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며 대학입학제도도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개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관리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공부를 잘하도록 하는것입니다. 학생교육요양과 관련한 모든 사업은 국가의 교육강령을 어김없이 집행하며 학습제일주의방향을 철저히 관철하여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높이도록 하는데 부중되게 하여야 합니다.

내가 얼마전에 국가교육발전전략을 보아주셨는데 내각과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들에서 교육발전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계획과 단계별 계획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철저히 집행하여 우리의 교육사업이 세계를 향하여 확산성있게 나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새 세계 교육혁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다음으로 학생들에게 충고한 정신과 높은 창조력을 키워줄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는것입니다. 교육내용과 방법은 인재양성의 질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입니다. 교육내용면에서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은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면서 과학기술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것입니다.

지금 중등일반교육부문의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을 집행하고있는데 모든 새 세대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전반적으로 발전된 혁명인재로, 새 세기 요구에 맞는 기술인재로 키울수 있도록 중등일반교육과정을 완성하여야 합니다. 중등일반교육의 모든 교육내용에 교육목표를 선군혁명과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높이 세우고 그것을 실현할수 있도록 과목구성을 바로하여야 합니다.

대학들에 인재양성목표를 따르는 교육내용을 과학적으로 편성하고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지식경제시대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기존지식을 전수하기 위한것으로 아니라 학생들이 새롭게 얻고 있는 지식을 더 빨리 알고 더 잘 활용할수 있게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육내용을 기초과목이나 전공과목이나 합친것이 현실이 요구되고 실지 써먹을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하고 기초적인 내용과 전공관련 내용을 밀착시키며 최신과학기술과목과 끊임없이 갱신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교육내용구성에서 실천과 실험실습, 기능훈련의 비중을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하고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개우쳐주는 교수방법을 구현하는데서 일정한 성과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아직도 교수방법이 지식전수위주교육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날수 못하고있습니다.

교수방법을 개선하는데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공고히 하면서 학생들의 지적능력과 응용능력을 높일수 있는 교수과정과 교수수단, 수업법을 창조하고 발전시켜 여러가지 교수형태들을 잘 결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수단위들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그에 맞게 교원들의 책임부담시간을 바로 정하며 다양한 과외교육교양방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험적방법, 시험방법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게 평가하며 그들의 학습열의를 적극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과학을 발전시키는데는 힘을 넣어 나라의 전반적교육을 새로운 과학적태도에 확고히 올려세워야 합니다.

교육과학의 발전을 떠나서는 교육혁명의 성과를 기대할수 없습니다.

교육과학연구부문에서는 주체적립장에서 교육조חק을 비롯한 교육과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교육을 과학화, 현대화하고 교육의 질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적극 풀어나가야 합니다. 교육과학연구부문을 비롯한 해당 부문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활발히 하여 선진적인 경험들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고 교육발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교육과학연구사업을 통일적으로 할수 있게 교육과학연구기관들을 통합정리하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과학전문가들을 많이 키워내며 실력과 풍부한 교수경험이 있는 일군들로 교육과학연구력량을 보강하여야 합니다. 대학들에도 실정에 맞게 교육과학연구력량을 꾸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중앙교육과학연구기관은 교육과학연구와 함께 교육정책자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야 합니다.

인재양성을 나무를 키우는데 비유한다면 교육은 토양과 같고 교육조건과 환경은 거름과 같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우리 나라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아시아의 어느 나라도 따를수 없는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입니다.

우리는 모든 학교와 대학들의 면모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하여야 합니다.

당에서는 평양시에 1중학교와 과학기술전당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훌륭히 건설하여 새 세기 학교교육과 사회교육기지의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학교들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사업에서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건축종합대학, 새로 건설하는 1중학교를 대학들과 학교들의 본보기로, 평양시를 도, 시, 군들의 본보기로 꾸리며 온 나라에 대학과 학교들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된 믿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교육시설과 실험실습기계, 체육기자재들을 현대화하며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한 교실로 전환하고 교수와 실험실습의 전과정을 정보화하여야 합니다. 대학과 학교들의 기술사를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에 편리하게 꾸리고 속식조건을 잘 보장하며 학과들을 수리법, 원림법, 과수원화하고 주변환경을 문화적으로 꾸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강령집행과 학생들의 교육요양에 유리한 국가적, 사회적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교육과 관련한 국가의 법률을 변화된 현실의 요구에 맞게 새로 제정하거나 수정보충하며 법집행구역을 잘 지켜 세워 교육강령과 국가교육발전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담보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로작에서 국가적으로 사회주의로 교육혁명을 추진하고 학생들의 교육요양에 부장적영향을 미치는 현상들과 요소들을 빼제 없이 찾아내어 바로잡기 위한 강한 대책을 세우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어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쓸모있는 인재로 키우자면 학생들이 교실에 앉아 공부만 하게 할것이 아니라 체육도 많이 하고 유희오락을 비롯한 문화정서생활도 하게 하여야 합니다.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 전자도서관을 비롯한 과외교육교양지점들과 과외생활기지를 새 세기의 높이에 맞게 꾸려주어 학생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마을것 배우고 생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참관과 단상, 견학에 필요한 조건들을 적극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가정교육과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밀접히 결합하여 학생들을 어려서부터 데리고 견학시켜 키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새 세계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면 교육사업을 중요한 나라로 내세우고 전당적, 전국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강하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당,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모든 일군들이 교육사업에 대한 솔바른 관점을 가지고 새 세계 교육혁명수행에서 조선로동당 당이시와 발걸음을 같이하여야 하겠습니까. 최근에 당에서 교육사업에 대하여 많이 강조하고 교육자, 과학자들의 살림과 학생들의 과외교양지점들을 현대적으로 꾸리는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는데 우리 일군들이 당의 의도를 잘 알고 여기에 보조를 맞추어나가야 합니다.

교육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까.

교육사업에 국가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하며 특히 학생들에게 일반기초지식을 주는 중등일반교육부문에 투자를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업에서는 좀 지장을 받더라도 교육사업에 요구되는 자금은 무조건 보장하여야 합니다.

당면하여 부족되는 학교와 교실, 기술사들을 빨리 건설하고 넓은 교사들을 보수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교과서와 참고서들을 충분히 보장하고 학용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교육부문에 세우며 교과서용종이메모에 예를 먹고있는데 국가적으로 종이보장대책을 세워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현대화, 정보화하는데 필요한 수단들과 현대적인 실험실습설비, 실험기구를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교육을 교종별, 남녀별특성과 계절에 맞게 잘 해입혀 우리 학생들을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워야 합니다.

모든 부분들에서 교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며 교육부문에 세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히 학교를 맡은 후진단체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원대렬을 강화하고 교원들을 우대하는 사회적기풍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졸업생들은 물론 다른 대학의 우수한 졸업생들도 교원으로 배치하여 중등일반교육부문 교원력량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고등교육부문 교원대렬을 선공부문에 정중하고 립전부분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가진 권위자들로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교원양성사업을 중시하고 여기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중등교육기간 수제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비롯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사범대학, 교원대학들에 우선적으로 보내어 교원으로 키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원들을 양성하는 대학들에서 사범교육의 질을 높여 졸업생들 가운데서 단 한명의 축적도 나오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당면하여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는데 맞게 부족되는 교원들을 양성보충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을 세우며 과외교원양성에서 제기되는 문제, 농촌지역과 산간지대의 특성에 맞게 다목적교원들을 양성하는 문제와 같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교원제교육사업에 힘을 넣어 현직교원들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원들을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우대하며 그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후대들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가는 교육자들을 금방치 않은 새 세기가 부러워하게 내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입니다. 전사회적으로 교원들을 존경하고 우대하는 분위기를 세워야 합니다. 교원들이 높은 긍지와 영예감을 가지고 교수교양사업에 전심전력할수 있도록 그들의 사업과 생활, 특히 정치조직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야 합니다.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까.

새 세계 교육혁명수행에서 기본담당자는 교원들입니다. 당의 구상과 의도에 맞게 교육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오는 문제와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전적으로 달려있습다.

교육사업은 함성이지만 현실이며 애국입니다. 누가 보진않된 알아주진않된 후대들을 양달의 역군으로 키우는 사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목숨까지 바쳐나가는 여기에 교육자의 삶의 보람이 있고 영예와 긍지가 있습니다. 모든 교원들은 당이 맡겨준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 초소를 섰다는 높은 자각과 숭고한 후대관을 지니고 변함없는 한몸소모도 고단을 지켜나가는 참된 교육자로서 되여야 합니다.

교원들은 조국의 미래를 가꾸어나가는데서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교원들은 학생들 이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세계적인 발명가, 과학자가 되고 나라의 역군이 될 포부와 희망을 안고 열심히 공부하여 지식의 탑을 높이 쌓아나가도록 하는데 전심을 쏟고 힘과 지력을 아낌없이 바쳐야 합니다. 교원들은 자기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조국의 미래가 비친다는것을 명심하고 정의와 진리를 가르치는 참된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교원들은 불같은 열정으로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하여 교육자로서의 정신도덕품모와 과학리론적, 교수실무적지점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까.

모든 당조직들은 새 세계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일때 대한 당의 구상과 방침이 철저히 실현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교육사업에 낮을 들리지 않고 의면하는 현상, 교육강령을 제대로 집행할수 없게 방해하고 제동을 거는 현상들에 대하여 제때에 문제를 세우고 날카로운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도, 시, 군당위원회들은 교육사업을 당위원칙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당의 교육정책이 편향없이 집행되도록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합니다. 시, 군당위원회들에서 모범교육관정조정위원회를 당직과업으로 틀어쥐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합니다. 도, 시, 군당책임일군들과 리당비서들이 학교교육사업에 일상적으로 관심을 돌리며 학교들에 자주 나가 제기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제때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교육부문 당조직들이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정치생활조직과 지도를 하여야 하는 교원들의 정치생활조직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교육부문 당조직들에서 교수교양사업에 원만히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당사업을 진행하며 당사업의 성과가 교수교양사업의 성과로 나타나게 할때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교육부문 당조직들이 교직원들과 학생들속에서 나타나는 비원칙적이며 부정사적인 현상들과 투쟁을 강화해 버리며 교육사업에 대한 정책적지도를 심화시키고 당의 교육혁명방침이 자그마한 편향도 없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할때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모든 일군들과 교육자들이 새 세계 교육혁명수행에서 맡고있는 중대한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당의 교육혁명방침관철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갈때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 인민은 부르네 친근한 그 이름

작사 차호근  
작곡 우정희

친근하고 서정깊게 (♩=76)

1. 내 나라는금의강산 - 화창 한방방곡곡에  
 은 혜론그-손길 어 리여 꽃 피 는꿈도많아 라  
 즐 겁고희망넘-친 -우 리 의생활속-에  
 인 제나정-답게 울 리는 친 근 한그 이-름  
 리 위-그리 위-그 리-위라- 불 타 는-불타 는-천 만-심장-우-  
 러 러따-르며 부 르네 우 리 의김정은동 지

2. 그 음성 곁에서 울려 누구나 마음 익히고  
 영명한 그 슬기 지니어 인민은 용감하여라  
 창조의 열정넘친 우리의 위훈속에  
 장군의 노래로 울리는 친근한 그 이름  
 (후렴)

3. 그 이름 높이 부르며 기적을 펼치는 인민  
 삼천리강산에 눈부신 강국의 속포 퍼치리  
 세계를 앞서가는 우리의 승리속에  
 영광의 기치로 빛나는 친근한 그 이름  
 (후렴)

# 오늘도 울려오는 월명의숙의 종소리

얼마전 두루봉혁명사적지를 찾았던 우리는 월명의숙도 돌아 보았다.  
 당시 사립학교였던 월명의숙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첫 국내당조직을 결성한 날 밤에 지하혁명조직책임자들과 공작원들에게 두루봉회의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방도들을 밝혀 주신 뜻깊은 사적이 깃들여 있었다.  
 세월의 풍운이 비겨 인상적인 종이 걸려있는 현판을 지나 교원실로 리용되었던 방에 들어서니 전신된 사적물들 가운데는 지게도 있었다. 국내당조직 결성의 못 잊을 사적이 이루어 지던 그날의 환경을 보아도 그때, 당시 학교교원실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도 그 지게는 이채로운 사적물임이 틀림 없었다.  
 전신되어있는 사적물에 깃든 사연을 들려주는 강사의 눈빛은 격정에 젖어 있었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주체의 혈통을 이어나갈 후대들을 키우는 데 바치신 수령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까.》  
 주제 19(1930)년 9월 30일이었다.  
 한낱도 퍼그나 기울무렵 두루봉을 내리는 한 소년이 있었다. 여라문살 나보이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수심에 잠긴 소년의 얼굴은 수림속의 무성한 나무들이 먼지는 그늘까지 비껴 더욱 어두워보였다. 자그마한 몸집에 얹힌 큰 나무단, 지게끈이 파고드는 어깨의 아픔을 가사로 참으며 산기슭을 향하여 내짚는 소년의 걸음걸이에서는 가혹한 세상속에서도 가냘픈 몸을 이루어 보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 느껴졌다.  
 (이런 나무짐을 얼마나 져다 팔면 학교에 다시 갈수 있을가.)  
 걸음을 멈추고 지게를 추며 먼 하늘가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소년의 눈가에 눈물이 펑 고이였다.  
 부엌에 흐려진 눈길너머 맑아누운 아버지의 모습이 밝혀졌다.  
 온성군 월파마을에서 지주놈

의 소작살이로 등뼈가 휘도록 농사를 짓던 아버지, 고달픈 하루일을 마친 밤이면 동통에 신음하던 아버지였다. 그 아버지의 인생에 한줄기의 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학교로 가는 모습이었다.  
 가벼운 바람결에도 훑날리는 연기마냥 가느다랗게 이어지던 소년의 학교길이었다. 그러던 소년의 학교길에 재난의 불뿔이 가 떨어졌다. 얼마전 부역에 끌려나갔던 아버지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던 것이다. 월사금을 내지 못하여 학교에서 쫓겨나던 날 소년은 밤이 깊도록 울고 또 울었다. ...  
 학교길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운명도 무겁게 실린 지게끈은 어깨를 모질게도 파고들었다. 심산속에서 누르의 도움도 바랄수 없는 외로움에 소년의 마음에 서러움을 더해 주었다.  
 주르르 불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주먹으로 뺨쳐버리며 소년은 지게끈을 틀어린 손에 힘줄을 주었다.  
 지게의 산기슭이 아득하게만 느껴지던 그때였다.  
 갑자기 나타난 청년 한분이 빠른 걸음으로 소년에게 다가갔다. 그뒤로 나무차문자편새를 한 여리들의 청년들이 산길을 따라 올라오고 있었다.  
 힘들겠는데 쉬어 가라고 하는 젊은이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머리에서 울리는 것과 동시에 같은 현실에 대한 마음이 든든 해지며 마음이 폭 놓이였다.  
 물거머리 눈으로 소년은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할 울려며 공부를 열심히 하여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굳게 결의하였다.  
 생기를 되찾고 산을 내리는 소년의 사랑스런 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안방에도 미소가 흐르고 있었다. 나라 잃고 배움의 길을 잃은 망국소년의 피뎀은 어깨에서 민족이 당하는 고통, 후대들의 가슴에 서서서리 얽힌 설움을 헤아려진분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그이께서는 들리신 지하혁명 조직책임자들과 공작원들에게 우리는 어떤 역경속에서도 후대를 키우는 일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혁명조직들에서는 도처에 아학과 학교를 꾸리고

어떻게 하나 월사금을 마련하여 보란듯이 학교에 다시 가서 공부를 하자고 강심을 먹은 그때부터 옥물러던 입술사이로는 저도모르게 흐느끼기 터져나왔다. 소년의 가슴속에 서려있던 응어리가 볼물처럼 녹아내리었다.  
 인자하신 젊은이의 음성이 들려왔다.  
 한창 배워야 할 나이에 학교에서 쫓겨난 소년의 사연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자기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살아가는 너는 참 뜻이 있고 강한 소년이라고 하시는 그의 말씀, 나라를 찾고 누구나 다 배우며 행복하게 살게 될 때일을 그려 주시며 너와 같은 소년들이 공부를 많이 하여 장차 나라의 훌륭한 역군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소년의 어린 가슴도 희망으로 부풀게 하였다.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신 그이께서는 잠시후 주위에 빈 들러앉은 동생들에게 이듯 혁명 조직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그가 공부를 하도록 할데 대하여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소년은 여러들정하였다. 간절한 소원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게 된것이었다. 하여 소년은 자기네 마을뿐 아니라 이웃동네들에서도 존대를 받고있는 낯익은 청년들도 정중히 반들어모시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우러랐다.  
 그이께서 자기의 손을 다시금 힘있게 잡아주시는 때 소년은 꿈같은 현실에 대한 마음이 든든 해지며 마음이 폭 놓이였다.  
 물거머리 눈으로 소년은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할 울려며 공부를 열심히 하여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굳게 결의하였다.  
 생기를 되찾고 산을 내리는 소년의 사랑스런 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안방에도 미소가 흐르고 있었다. 나라 잃고 배움의 길을 잃은 망국소년의 피뎀은 어깨에서 민족이 당하는 고통, 후대들의 가슴에 서서서리 얽힌 설움을 헤아려진분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그이께서는 들리신 지하혁명 조직책임자들과 공작원들에게 우리는 어떤 역경속에서도 후대를 키우는 일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혁명조직들에서는 도처에 아학과 학교를 꾸리고

배움의 길을 잃은 청소년들을 공부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의 가르치심에서 일행이 받아안은 충격은 이루 말할수 없이 컸다. 조선혁명사에 특기할 사변적의의를 가지는 첫 국내당 조직의 결성과 두루봉회의가 진행될 장소를 돌아보기 위하여 두루봉으로 오르시던 위대한 수령님, 그처럼 중대한 사변을 준비하시는 속에서도 혁명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후비대의 교육요양문제를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 최우선적인 중대사로 보시는 그의 크나큰 뜻이 그들의 가슴을 꽉 채워주고 있었다.  
 어느덧 해설을 끝낸 강사를 따라 우리는 다음사적지로 가야 하였다.  
 지게에 깃든 사연같은 이야기 가 아직도 구가에 정평한데 월명의숙의 처마끝에 매달린 종이 붙어있는 바람결에 은은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지게군소년의 배움의 길이 다시 시작되던 그날에도 월명의숙의 종소리는 힘차게 울렸을것이다.  
 항일혁명의 첫 기슭에서부터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담아 종소리가 울린 것이 어찌 두루봉기슭뿐인가.  
 조선혁명사는 절세영웅의 후대교육의 높은 뜻에 실려 준엄하고 시련에 찬 나날일수록 배움의 종소리를 더욱 높이 울린 위대한 력사이기도 하다. 끝없이 밀려드는 악착한 일제를 물리치던 유격주의 학교들에서 높이 울린 그 종소리는 해방후 북조선로동당인민위원회의 첫 회를 도의한 회의장에도 들리어왔고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시기에 실시된 무로교육의 종소리로 더욱 높아졌으며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야 했던 시기에도 온 나라 방방곡곡에 자리잡은 해빛같은 교정들에서 더욱 힘차게 울리지 않았던가.  
 월명의숙의 크지 않은 종을 바라보며 우리는 절세영웅의 뜨거운 사랑과 열에 의해 이 땅우에 끓어넘어 후대교육의 감동깊은 력사가 새겨져 쉬이 사적지를 떠날수 없었다.  
 본사기자 한영민

#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한걸음 늦추면 조국의 전진이 열걸음 떠진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에 후대교육사업을 소홀히 하면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장래에 돌이킬수 없는 엄청난 후과를 빚어내게 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후대교육사업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 사업이며 민족의 흥망성쇠, 조국의 장래운명 과 관련된 중대한 사업이다.  
 다른 사업에서는 전세대가 다 하지 못한것을 후대들이 보충할수 있지만 후대를 키우는 사업은 잘하지 못하면 그 후과는 무엇으로도 보상할수 없다.  
 오늘 인간의 존엄과 가치기 때문에 결정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사회적평등과 사회악

의 희생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우환거리로 되고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전쟁과 사회적 충돌, 질병과 기아로 하여 목숨을 잃고 정신적불구자로 되고 있으며 거리를 방황하고 범죄와 타락의 길로 굴러떨어지고 있는것이 썩고 병든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이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사랑하지 않고 후대들을 돌보지도 가꾸지도 않는 자본주의사회야말로 미래가 없는 사회이다.  
 그 나라의 장래를 알려거든 어린이들을 보라는 말이 있다. 새 세대들의 맑은 눈동자, 씩씩하고 기백넘친 모습에 부강번영하는 조국의 미래가 비껴가게 된다.  
 일찍이 위대한대원수님께서는 후대들에게 많은 사랑을

기울이던 기울일수록 레일의 조국은 더 부강해지고 더 문명해지고 더 아름다워질것이라고 하시면서 어린이들을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로 내세워주시고 그들이 희망과 포부를 마음껏 꽃피울수 있도록 크나큰 심혈을 바쳐오시었다. 북조선로동당인민위원회의 첫 회정에 연필문제를 상징시키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시였으며 곳곳에 소년궁전, 야영소들을 일떠세워주시던 위대한대원수님들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의 대가 곳곳이 이어져왔다.  
 오늘 우리 조국에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강성조선의

안팎을 떠메고나갈 기동감들로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다. 후대들에 대한 관점은 곧 혁명에 대한 태도와 립장문제이며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은 출신하는 것은 혁명을 포기하는것과 같다고 하시며 새 세대들을 혁명의 후비대, 미래의 주인공들로 키우는 사업은 우리들의 경에하는 원수님이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첫해에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에 참석하시어 소년단원들의 맑은 미래를 축복해주시고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시었다. 과학기술로 크나큰 사랑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유류자동병원회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훌륭히

일떠서고 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새 세대들이 《세상에 부럼 없으라》의 노래를 부르며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는 오늘을 긍지높은 현실은 경에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이 안아온것이다.  
 관건한 정신도덕적품과 높은 과학기술적능력, 풍부한 문화적소양을 지닌 후대들은 나라와 민족의 가장 귀중한 자부이다. 새 세대들이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드는 열렬한 혁명가,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과학기술로 부강조국을 떠받드는 인재로 억세게 자라나기에 백두산대국의 미래는 끝없이 창창하다. 온 철 희

# 조국의 래일을 위한 숭고한 사업

◇ 어버이수령님께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37년이 되는 뜻깊은 시기에 평양에서는 제 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대회참가자들은 물론 온 나라 교육자들과 인민들은 주제교육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께서는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 바치는 노력은 수십년후 후대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을 결정하게 될것이며 그들이 건설하게 될 조국의 면모를 좌우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며 주제교육의 시원을 열어놓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나시었던 후대관을 한평생 변함없이 고수하여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토록 어려웠던 시련의 시기에도 김일성종합대학과 원산농업대학(당시), 삼지연군 무봉중학교(당시)를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들을 찾으시고 새 세대들을 매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준비시킬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후대교육사업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년대와 년대를 이어, 세기와 세기를 이어 더욱 빛나고있다.  
 ◇ 교육사업은 조국의 래일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가들에게 있어서는 오늘보다도 래일을 위하여 살며 투쟁하는것이 더 중요함이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교육사업은 민족의 장래와 후대들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교육사업은 오늘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할수 있다는 참오도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래일을 위한 사업,  
 새 세대들에 대한 교육사업은 혁명의 다음대를 키우는 사업이고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사업이며 이것은 혁명의 전세대들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세심한 명도와 뜨거운 사랑이 있어 우리의 교육제도도 혁명인제양성의 비옥한 토전으로 그 우월성을 더 높이 발휘할수 있었다.  
 ◇ 교육사업에 조국의 미래가 비친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올레신년에서 교육을 비롯한 문화건설에서 큰걸음을 내짚어와야 한다고, 교육부문에서는 혁명의 요구,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중등일반교육을 비롯한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은 후대들을 위한 사업이며 선진조선의 미래는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는 가 하는데 달려있다.  
 모든 교육일군들과 교원들은 교육사업에 조국의 미래가 비친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당의 교육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 교육자가정, 그 부름 언제나 가슴에 안고

우리 가정을 가리켜 사람들은 교육자가정, 애국자가정이라고 한다.  
 애국자가정, 복받은 가정.  
 정갈 그렇다.  
 꿈인지 생시인지 알수 없었던 그날로부터 두해가 지났지만 경에하는 원수님들 가정에 모시였던 잊지 못할 감격이 어찌될듯 생생하고 교육자가정이 라고, 애국자가정이라고 값없는 칭호를 안겨주시던 그이의 친근하신 음성이 들려오는것만 같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애국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입니다.》  
 잊을수 없는 9월의 그날 창건거리에 입사한 동무들을 만나보고싶어 왔다고 하시며 우리 집을 찾으셨던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매 방들을 돌아보신 후 안락과 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고 물으실 때에도 얼마나 커다란 행복이 기다리고있는지 다 물었다.

우리들모두가 교원이라는것을 아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못내 만족하시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당에서는 교육사업을 대단히 중시하고있다고, 교육사업은 나라의 흥망과 관련된 중대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나는 이 교육자가정의 선생님들이 자기 사업을 더 잘해 나가라라고 믿을수나라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교육사업에서 특출한 성과를 거둔적이 별로 없는 우리들이었다. 말은 일에 성실하려고 노력해왔을뿐이었다. 이런 우리를 선생님이라고 정답아 불러주시며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니 그저 놀라만 앞섰다.  
 그이의 사랑과 은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뜨거워만지었다. 우리 가정이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손수 축배까지 부어주시고 가지고오신 천연색 텔레비존상기와 그릇들, 교단이라는것을 심장속깊이에 간직하게 한 더없이 귀중한 순간이었다.

자신께서는 군인가정, 예술인가정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교육자가정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교육자들은 누가 보진말건, 알아주진말건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묵묵히 랑심을 바쳐가는 애국자들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 이런 믿음이 또 어디에 있었는가.  
 그이의 믿음의 말씀은 계속되었다.  
 거룩도 부리는 보이지 않는것처럼 교원들이 바치는 헌신과 진정이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후대들에 의해 나라가 된다. 이 가정은 조국의 미래를 맡아 키우는데 랑심을 바쳐가는 애국자가정이다. ...  
 교육사업은 조국과 혁명의 미래를 키우는 가장 보람찬 사업이며 깨끗한 애국의 마음이 없이는 설수 없는 곳이 신성한 교단이라는것을 심장속깊이에 간직하게 한 더없이 귀중한 순간이었다.

하기에 저는 떠나시기에 앞서 저의 손을 따듯이 잡아주시며 앞으로 교육사업을 더 잘해나가기 바란다고 하신 경에하는 그이의 당부를 어느 한시도 잊지 않고 교육자가정의 영예를 빛내이기 위해 자신을 제책질하였다.  
 허나 받아안은 믿음에 찬탄분의 일도 보답 못한 우리들에게 경에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못 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거듭 안겨주시고 이번에도 우리모두를 똑같이 교육일군대회에 불러주시었다.  
 이 영광, 이 행복을 하늘에 비기겠는가, 바다에 비기겠는가. 저는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직접 수여하여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이 모서진 시계의 변함없는 초침에 언제나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그이앞에서 다진 맹세를 한생 지켜나갔다.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 교육자가정의 대를 빛내주시고 싶겠습니다.》  
 평양기계대학 교원 심동수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 받들어 우리 조국을 더욱 빛내여갈 결의에 넘쳐있는 청년대학생들 - 김일성종합대학에서 - 본사기자 찍음

#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자

## 위대 성교양을 방법론 있게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충직하게 계승하고 길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최근 평양식료일용품문화교에서 학생들을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들을 방법론있게 짜고두고있다.



선물문실에 있던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깊이 되새기고있다. -인산산업종합대학에서-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2 중 3 대학명품은기 평양식료일용품문화교 일군들의 사업에서**

학교에서 위급하는 학과목 수만 해도 수십개, 또 많은 과의 시간을 실험실습으로 보내는 교원들과 학생들에게 늘 모자라는 것은 시간이다. 하지만 이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려면 교육일군들이 항상 관심을 두는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떻게, 무엇으로라는 방향과 방도적인 문제를 명백히 풀어주고 사업을 전개해나가야 하는것이다. 학교일군들은 사회과학자

교원들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모든 교육단위에서 첫째하는 사업으로 여기고있다. 하지만 이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려면 교육일군들이 항상 관심을 두는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떻게, 무엇으로라는 방향과 방도적인 문제를 명백히 풀어주고 사업을 전개해나가야 하는것이다. 학교일군들은 사회과학자

## 우시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시군에서 경에하는 원수님의 후대사상, 미래사상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모범교육공의 영예를 더욱 빛내어나가고있다. 최근에는 원수님의 후대사상, 미래사상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모범교육공의 영예를 더욱 빛내어나가고있다. 최근에는 원수님의 후대사상, 미래사상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모범교육공의 영예를 더욱 빛내어나가고있다.

최근에만도 군에서는 콤포터,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 복사기를 비롯한 600여대의 교육설비들과 자동차, 트랙터 등의 물건기재, 외국어시각각설비 등을 마련하여 학교들에 보내주고있다. 군의 모든 학교들의 교육조건과 교육환경이 종합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충분히 갖추어져 대대적교육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고있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후대사상, 미래사상의 뜻을 꽃피워가는 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 열정에 의해 읍지구의 육육육은 공원들과 청소년들의 정취를 위한 곳마다에 청소년학생들을 위한

## 교육사업에 교재림을 적극 리용

### 2중3대학명품은기 해주의학전문학교에서

푸른 숲 우거진 교정! 이것이 우리가 2중3대학명품은기 해주의학전문학교를 찾았을 때 받은 첫인상이다. 교정에는 7 500여그루의 나무들과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푸른 숲을 이루고있다. 우리와 만난 학교의 일군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 이렇듯 푸른 숲이 우거지고 학생들을 양육하는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로 준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교육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랑하는것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학교관리운영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는데 중요한것은 교육환경을 잘 꾸리고 학교를 문화위생적으로 관리하는것입니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는 누가 보지 않더라도, 앞날이 밝은 민족의 자식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디.》**

학교에서는 지난 기간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중단없이 진행하고있다. 그날 학교에서는 매해 수백 그루의 나무를 심고 사물들을 높이기 위한 대경관제제를 세웠으며 그곳에 야외학습장을 꾸려놓고 캠퍼스나와 같은 야나들도 심어 교육환경을 더욱 개선할 수 있게 하였다. 그렇게 되어 학교주변에 교재림을 포함한 푸른 숲이 더욱 우거지게 되었다. 리달성, 변화순동무를 비롯한 학교의 일군들과 교원들은 교재림을 통한 교육교양사업에 응당한 힘을 냈었다. 학교에서 활발히 벌여지고 있는 학생과학연구소활동의 경우만 보아도 그렇다. 조소에 망라된 학생들은 교재림에 꾸러진 야외학습장에서 여러가지 작사물들을 관찰하면서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10월 8일 모범교육수장증서를 비롯하여 그가 받은 증서들은 수 없이 많다. 불같은 사색과 탐구로 흘러온 나날들에 그는 박사학위논문은 완성하였으며 수많은 교원들과 제자들을 학위학석사소유자로 키웠다. 그의 제자들이 맡겨진 초소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때마다 교육자된 긍지와 영예를 더욱 부끄럽게 느끼며 교육의 길

어머니장군님께서 로제선동무에게 은정어린 생일 여든뉘살을 보내주시었다. 어머니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이 어닌 생일상을 받아 안은 로제선동무는 걱사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며 지나온 인생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로제선동무가 교원이 될 꿈을 품은 것은 철이 들기 시작해서였다. 일체의 약한 민중학생들 동으로 조선사람들은 학교문턱에 다가 가기 힘들었던 그 시기 그는 이다음 크면 교원이 되어 아이들에게 마음껏 글을 가르치리라 꿈에 마음다지였다. 그의 소중 한 꿈은 어머니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온 다음에 실현될수 있었다. 그는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여 배운의 나뭇을 활짝 펼치며 교정에서 일어나자 펜을 총대로 바꾸어잡고 용양 전선으로 탄원하였다. 어머니수령님의 은정어린 조치로 다시 대학으로

## 불같은 열정안고 30여년

조선의 건국에 이바지하였다. 오늘도 그는 교육혁명의 주된 공, 교육발전의 직접적담당자라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후대교육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다. **특파기자 리승철**

## 교단에 비견 참다운 애국의 60여년

실력제고를 위해 보다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하루하루를 불같이 살았다. 그리하여 그는 교단에 선지 10여년만에 학위논문은 완성하여 우리 나라의 첫 여성학위소유자로 되었다. 나라에서는 여성교육자가 이룩한 성과를 소중히 여겨 그의 이름을 학위수여장명단의 맨 첫자리에 높도록 해주었고 그의 숨은 노력은 온 나라에 널리 소개되었다. 그의 사랑과 믿음이 클수록 로제선동무는 당이 바라는 참된 교육자가 되기 위해 더욱 분발하였다. 그는 전국교육자들과 전국적인 범위의 과학토론회를 비롯한 수많은 경연과 전시회, 토론회들에 참가하여 높은 경지를 보였다.

## 선봉농업대학 교원 로제선동무

그해 어머니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속에 그는 부교수의 학직과 함께 높은 국가수훈을 수여받았다. 그리고 12월에는 조선 지식인대회에 참가하여 어머니수령님의 존엄이 모서진 시계 표창을 받아안았으며 절세위인들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었다. 참으로 로제선동무에게 들려준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은정은 정령 끝이 없었다. 하기에 그는 20여년전의 잊지 못할 그해 증축식을 이어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참된 교원혁명으로 삶을 빛내일 자기의 결심을 열렬히 터놓았다. 그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도 교육자로 내세웠다. 대학을 졸업한 두 아들을 교단에 세웠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외국 손님들 꽃바구니 진정

민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5월 주조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유엔 아동기금, 유엔개발계획, 세계보건기구, 세계식량계획대표부 성원들과 뮌헨사회주의공화국 립시대리대사가 꽃바구니들을 진정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셨으며 세계평화와 안정 수호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마음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들의 덩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는 영생할것이다》 등의 글씨가 적여져있었다.

## 기쁨과 랑만을 더해주는 체육열기

신 의 주 마 이 싱 공 장 에서

의 선수들 또한 만만치 않은 자세로 경기에 출전하고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슬아슬한 경기장면들, 향된 선수들이 연속적인 드센 강타로 멧있는 득점장면들을 펼쳐보일 때마다 중원원들이 열광적으로 응원하고있다. 《이제라, 이제라, 우리 선수 이겨라,》라는 응원소리로 드높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는 더욱 치열한 공방전으로 이어지고있다. 선수들과 응원자들의 열광마다에 기쁨과 랑만이 한껏 넘쳐있었다. 오늘의 체육열기를 더 높은 생산성과로 이어갈 결의가 가슴마다에 불라고있다.

## 청소년체육학교 훌륭히 개건

우리 당의 체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개성시에서 청소년체육학교를 훌륭히 개건하였다. 풍치수려한 송악산기슭에 일떠선 체육학교에는 새 교사와 훈련장, 목욕탕 등 교육시설들과 문화휴식시설들이 고르게 갖추어져있다. 탁구, 권투, 테니스, 격투기 비롯한 종류의 실내훈련장들과 잔디를 심은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씨름, 모험항공기와 활조기 훈련장 등이 특색있게 꾸러진 학교에서는 체육인후비들이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게 된다. 시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조건을 끊임없이 개선할데 대한 당의 의도대로 짧은 기간에 학교의 면모를 일신시킬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본청사를 개건하고 교사와 보조직원들을 새로 건설해야 하는 공사과제를 일일대로 추진하기 위해 능력있는 일군들과 기술자

##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 생일 축하모임 진행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 참가자들의 생일 축하모임이 5일 4, 25리판에서 진행되었다. 한광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관계부 일군들이 생일을 맞이한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한광복부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의 숭고한 뜻을 안고서 전국 교육일군대회를 마련해주시

## 브라질 특명 전권대사 독립절에 즈음하여 연회 마련

브라질 특명 192쪽에 즈음하여 로베르투 폴린 주조 브라질련방 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5일 대동강의 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리수용의무상, 박근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 조선 브라질련방문화협회 위원장인 서호원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성원들, 국제기구대표들이 초대되었다. 브라질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로베르투 폴린 특

##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

7일 10시부터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과 압록강국방체육단 남, 녀선수들이 참가하는 활쏘기 1급경기가 조선인

## 말레이시아 국왕에게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말레이시아 국왕에게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말레이시아 국왕은 전실하고 친선적인 관계를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협조해왔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 관계가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기대를 표시하였다. 조선인민에게 평화와 진보, 번영이 있기를 바란다고 그는 말하였다.

##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

7일 10시부터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과 압록강국방체육

## 말레이시아 국왕에게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말레이시아 국왕은 전실하고 친선적인 관계를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협조해왔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 관계가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기대를 표시하였다. 조선인민에게 평화와 진보, 번영이 있기를 바란다고 그는 말하였다.



